

신화의 이상탄생 화소와 서사의 두 경향

김 기 호*

< 목 차 >

- I. 머리말
- II. 탄생과 생애의 양상
 - 1. 수용된 탄생과 생애
 - 2. 유기된 탄생과 생애
- III. 탄생화소의 생애 제약성
 - 1. 수용된 탄생과 제약성
 - 2. 유기된 탄생과 제약성
- IV. 제약성과 서사의 두 경향
- V. 맺음말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prove a connection aspect between birth motif and lifetime, a lifetime restriction of birth motif, and an tendency of an extraordinary birth myth according to a birth motif, making an extraordinary birth myth an object. The results drawn are as follows.

In the first place, an extraordinary birth myth is divided into two parts on the basis of the connection aspect of birth and lifetime. The one is a series of Hyeukgeose, Kyemwa, Alzi, and Suro myth, the other, Jumong and Talhae myth. The common principles of birth of myths belong to the former are a denial of protagonist's actual father and mother, a vertical shift in their birth, an acceptance of their birth, and so on. The principle of their lifetime is, not experiencing hardships and trials determining a victory or a defeat in life, they get only achievements. The principle of birth in

* 대구가톨릭대학교 강사

the myths belong to the latter are, while actual father is denied, mother accepted as an actual mother. and a horizontal shift in their birth, a denial of their birth. The common principle in their lifetime is though studied with real conflicts, hardships, strifes, supposed to win in the long run. The myths could be classified into two series in view of this common principle.

In the second place, I could prove that the birth motif determines a way of their lifetime. Their lifetimes in Hyeukgeose, Kyemwa, Alzi, and Suro myth are determined by three principles of birth. Among them, I confirm that a vertical thinking endue with sacredness and the imagination of children in a developing time, that is, a thinking of a foster child that has come to one by chance, have deeply influence on the restrictions of life. Their lifetimes in Jumong and Talhae myth are, also, determined by the principle of birth. Among them, I clarify that a horizontal thinking endue with a heroic and the imagination of children in a developing time, that is, a thinking of a bastard child, determine the aspects of life. From this I draw a conclusion that a birth determines a lifetime.

In the third place, I examine two series of myth, relating with the tendencies of the narratives, divided from the principles of the birth motif. From the standpoint, I clarify that, though in a form of origin, the tendency of myth can be divided into a tendency of 'a romanticism' and 'a realism'. Hyeukgeose, Kyemwa, Alzi, and Suro myth represent a tendency of a romanticism, Jumong and Talhae myth, a tendency of a realism. And in determining this tendency, a vertical thinking and a thinking of a foster child that has come to one by chance determine a tendency of a romanticism, a horizontal thinking and a thinking of a bastard child, a realism.

I. 머리말

한국의 신화에 있어서 주인공의 탄생은 대체로 비정상적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탄생을 하나의 수식으로만 보아 넘길 수는 없다. 작품이 하나의 유기체이다라는 말은 어느 한 부분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탄생 부분은 단순한 수식의 차원을 넘어서 작품의 전체 구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신화에서 이야기되는 주인공의 비정상적인 출생 화소는 선학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무엇보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상탄생 화소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것이 지니는 상징성을 밝히고자 했다.¹⁾ 그 중에서도 김열규의 생생력에 관한 상징²⁾과 조희웅의 원시신앙과 관련한 상징³⁾ 구명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한편 김열규⁴⁾와 조동일⁵⁾은 신화에서 ‘전기적 유형’, ‘영웅의 일생’이라는 유형 구조를 밝혔다. 여기서 이상탄생 화소는 구조의 한 요소로서 구조 속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두 연구자는 화소 중심의 개별적 연구를 넘어서서 이것을 유기체의 한 부분으로 다루는 안목을 보여주었다.

한편 승 일연이 이상탄생 화소에 대해서 보여준 통찰은 새로운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는 『삼국유사』 기이 제1에서 “제왕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부명을 얻고 도록을 받게 된다. 때문에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게 마련이

- 1) 허경희, 「한국의 왕조설화 연구」,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1987)
 이상우, 「주몽신화의 기본구상-탄생담을 중심으로」, 『명지어문학』, 19집, (명지대 국어국문학과, 1990)
 소재영, 「이류교구고」, 『국어국문학』, 42·43합, (국어국문학, 1969)
 강진옥, 「한국설화의 이류교혼 모티브 연구」, 『이화음운론집』, 제11집.
 서대석, 「구렁덩덩 신선비의 신화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제3집, (고전문학연구회, 1986)
- 2)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서울:일조각, 1991), pp.208~253.
- 3) 조희웅, 『설화학강요』, (서울:새문사, 1989), pp.145~181.
- 4) 김열규, loc.cit..
- 5) 조동일, 『민중영웅 이야기』, (서울:문예출판사, 1992)

다. 그런 뒤에 큰 변의 틈을 타서 대기를 잡아 대업을 이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⁶⁾라고 했다. 여기서 ‘부명’과 ‘도록’은 탄생화소에 해당되며 ‘큰 변의 틈을 타서 대기를 잡아 대업을 이룩’한다는 것은 주인공의 생애에 속한다. 그리고 ‘그런 뒤(然後)’는 탄생과 생애의 논리적 관계를 나타낸다. 이 관계는 원인과 결과를 영향을 주는 것과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주인공의 생애가 탄생화소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것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⁷⁾

승 일연의 통찰에 힘입을 경우 이상탄생 신화는 보다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될 수 있다. 왜냐하면 탄생화소와 주인공의 생애와의 관계가 새롭게 조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주인공의 탄생이 환영을 받을 때 그렇게 태어난 주인공의 삶에는 성취된 내용만이 포함된다. 이것의 예는 혁거세, 금와, 알지, 그리고 수로 신화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주인공의 탄생이 환영받지 못할 때 그렇게 태어난 주인공의 삶은 비교적 시련과 고난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의 예는 주몽과 탈해 신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탄생화소에 따라 주인공의 생애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탄생화소와 생애를 분석하여 이 둘의 결합 양상을 밝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탄생화소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구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이상탄생 신화와 서사의 경향성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설정한 이유는 탄생화소를 통해 아직 논의되지 않은 신화의 성격을 밝힐 수 있으리라는 점과, 이상탄생 화소에 대해 온당한 서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6) 然而帝王之將興也 膺符名 受圖錄 必有以異於人者 然後 能乘大變 握大器 成大業也(『삼국유사』, 기이 제1 서)

7) 이러한 사실에 대해 오토 랑크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Otto Rank, *The Myth of the Birth of the Hero*, Tr. by Robbins and Smith Ely Jelliffe, New York: Random House, 1964, pp.65~96) 한편 마르트 로베르는 랑크의 논의를 이어받아 출생과 관련된 화소가 서사의 두 경향과 관련됨을 밝히고 있다.(마르트 로베르 김치수·김윤옥 역,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원』, 서울:문학과 지성사, 1999)

II. 탄생과 생애의 양상

이상탄생 신화에서 주인공의 탄생 이야기 부분은 두 개의 범주로 나뉘어진 다. 하나는 수용된 탄생이며 다른 하나는 수용되지 못함으로 나타난 유기된 탄생이다. 본 장에서는 이 두 가지 탄생에 따라 신화의 특성을 밝히고 이를 통하여 신화가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삼국유사』 소재 신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두 개의 장으로 나눈다.

1. 수용된 탄생과 생애

수용(收容)이란 사람이나 물품 따위를 거두어 일정한 곳에 넣어둠이다. 여기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기뻐하여 축하하면서 거두어들임을 뜻한다. 탄생(誕生)이란 귀한 사람이 태어남을 높이어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는 일화에 그치지 않고 두 번에 걸쳐 완결되는 출생을 포함한다. 따라서 수용된 탄생은 두 번에 걸쳐 출생이 완결된 주인공이 사람과 자연으로부터 행복과 앞날을 위해 축하를 받는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출생을 보여주는 자료에는 혁거세 신화, 알지 신화, 금와 신화, 그리고 수로 신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이들 네 개의 신화를 중심으로 출생과 생애의 양상이 갖는 공통된 원리를 분석한다. 그리하여 이들이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밝힌다.

먼저 출생의 원리를 밝히기로 한다. 주인공의 출생과 관련하여 네 개의 신화들이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주인공을 낳은 실제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만큼 출생한 주인공의 부모는 애매하게 처리되고 있다. 혁거세 신화에서 혁거세는 일차적으로 알로 출생한다. 그러나 이 일차적 탄생에 있어서 알의 부모는 누구인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알지 신화에서 알지는 나무 상자에서 나오는데 그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수로 신화에서도 주인공은 알이 아이로 변해서 출생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도 알의 부모가 누구인지는 이야기되어있지 않다. 금와 신화에

서는 아이가 바위 아래에서 발견되는데 실제로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출생한 아이의 실제 부모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은 암시적으로 제시된다. 혁거세 신화에서는 흰말이 알을 두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알지 신화에서는 보랏빛 구름이 하늘로부터 땅에 드리우고 구름 속에는 황금 껍질이 나무 가지에 걸려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수로 신화에서는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져서 땅에 닿았고 그 노끈의 끝을 찾아 보니 붉은 보자기에 금으로 만든 상자가 쌓여 있으므로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 알이 여섯 개가 있었다고 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볼 때 이들 알의 출처는 한결같이 하늘에 있다. 그렇다면 이 알을 낳은 실제 부모는 천상의 존재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부모는 인간의 존재가 아니고 현실 저 너머 있을 법한 초월적 존재들이다. 한편 금과 신화의 경우는 아이가 바위 밑에 있었다고 했다. 바위 밑이 의미하는 세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은 간단하게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그의 출자는 지하의 세계라고 보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이 아이를 낳은 부모는 지하의 세계에 있는 또 다른 초월적 존재이다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위의 자료들이 모두 출생한 아이의 실제 부모에 대해 애매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그 애매성 속에서 그들의 실제 부모가 초월적 존재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의·속세의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이야기들이 의도적으로 현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자리에 초월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것을 위의 자료들이 지니고 있는 출생의 1원리로 삼는다.

한편 이들 주인공들의 출생은 두 번에 걸쳐 완결된다. 이들 주인공들의 출생을 제1의 출생 과정과 제2의 출생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제1의 출생 과정이 네 개의 신화에서는 동일하게 생략되어 있다. 다만 출생 과정 대신에 출생의 결과만이 나타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들 자료들에서 출생은 제1탄생에서 그치지 않고 제2탄생을 거침으로써 완결된다.⁸⁾ 혁거세의 경우는

8)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하지만 제2탄생 자체는 아이의 출생을 강조하는

알로부터 태어나며, 금와의 경우는 바위로부터 바깥 세상으로 나오며, 알지의 경우는 황금 껍질에서 나온다. 그러나 제1탄생에서 인물의 출생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2탄생을 위해 누군가가 나서서 인물을 다른 장소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대상 자료를 통해서는 어떠한 이유로 제1탄생에서 출생이 마무리되지 못했으며, 누가 인물을 제2탄생의 장소로 보냈는지를 알 수 없다. 다만 자료들은 인물들이 처음 출생한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는 것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혁거세는 나정으로, 금와는 곧연으로, 알지는 월성으로, 수로는 구지봉으로 보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의 공통된 원리가 발견된다. 그것은 제1탄생지에서 제2탄생지로 보내지는 방향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수직적 이다. 혁거세는 하늘에서 나정으로, 알지는 하늘에서 월성으로, 그리고 수로는 하늘에서 구지봉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금와 또한 땅에서 지상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들은 제1탄생지에서 제2탄생지로의 이동 경로를 하늘 및 땅 속에서 지상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직적 이동을 출생의 2원리로 삼는다.

제2의 출생 과정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의 태도 또한 동일하다. 그들이 보여 주는 태도는 제2출생을 전후하여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경이로움을 나타내는 태도이고 하나는 탄생을 축하하는 태도이다. 경이로움은 출생 전의 태도이며 축하하는 출생 후의 태도이다. 특히 출생 후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수목과 짐승들도 함께 축하한다. 혁거세가 탄생할 때에는 새와 짐승들이 모조리 춤을 추며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맑게 밝았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투어 치하하였다고 한다. 금와의 경우 왕이 기뻐하며 “이는 하늘이 나에게 주시는 아들인가보다”라고 하면서 금와의 출생을 기뻐하고 있다. 알지의 경우 그를 안고 대궐로 돌아오는 길에 새와 짐승들이 뒤를 따르면서 기뻐서 뛰며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고 한다. 수로의 경우 그를 평상 위에 앉히고

일종의 모방적 의례의 산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들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여러 사람들이 절하고 하례하면서 극진히 공경했다고 이야기한다. 이들은 한결같이 제2탄생 과정을 거쳐 출생한 주인공을 향하여 축복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출생한 주인공을 수용하고 축복하는 주변사람들의 태도를 출생의 3원리로 삼는다.

다음으로 이들 생애와 관련해서 이야기들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시련과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신 현실의 역정을 뛰어넘어 한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의 최고자리에 주인공이 추대됨과 그 이후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생애에도 또한 심각한 장애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이들의 생애는 생의 문제를 뛰어넘어 소망스런 성취로만 이루어져있다.

혁거세의 경우 “남산 서쪽 기슭에 궁실을 세우고 이들 두 성스러운 어린이를 모셔다가 길렀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그가 “6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던 어느 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이 두 줄이 혁거세의 생애를 설명하는 내용의 전부이다. 어려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모셔졌으며, 또 왕이 되고, 왕이 된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고난은 없다. 금와의 경우 “차츰 자라자 태자로 삼았고 부루가 죽자 금와가 위를 이어 왕이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도 인간이 가장 소망하는 성취만이 있다. 알지의 경우 “왕은 길일을 가려 그를 태자로 책봉했다”고 한다. 물론 그가 뒷날 태자의 자리를 파사왕에게 물려준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의 고난은 이야기되고 있지 않다.

수로는 왕으로 즉위하자 검소하게나마 궁실을 세우고 모든 정사를 다스리고 여러 일도 부지런히 보살폈다고 한다. 그러던 중 탈해를 맞이하게 되고 탈해와의 변신 경쟁을 펼친다. 이 경우 다소간의 시련을 내재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수로가 왕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한한 변신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제기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탈해와의 변신 경쟁담은 시련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수로의 초월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아유타국의 공주를 맞이하고 국사를 잘 보살피며 향년 158세에 죽는다. 이러한 일련의 생애에서 보듯이 생의 문제는 뛰어넘고 소망스런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다.

논의를 정리하면 혁거세, 금와, 알지, 그리고 수로의 탄생 원리는 첫째 현실

의 부모가 부정되고 그 자리에 초월적 존재자로 대체된다는 점이다. 둘째 주인공들은 출생과정에서 수직적 이동을 한다는 사실이다. 셋째 그들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부터 축복과 환영을 받는다는 점이다. 다음 이들의 생애에 나타나는 원리로 주인공들이 생의 문제를 뛰어넘고 다만 소망스런 성취와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수용된 탄생이 소망스런 성취로만 이루어진 생애와 결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수용된 탄생과 소망스런 성취의 내용이 결합된 이야기를 이상탄생 신화의 한 유형으로 분류한다.

2. 유기된 탄생과 생애

유기(遺棄)란 내버리고 돌아보지 않음을 뜻한다. 이 말을 수용(收容)의 대가 되는 것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탄생 또한 과정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유기된 탄생이란 내버려지고 돌아보지 않는 상태에 놓이는 두 번의 출생을 의미한다. 이러한 출생을 보여주는 자료에는 주몽 신화와 탈해 신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이들 신화를 대상으로 하여 유기된 출생과 그의 생애의 양상이 갖는 공통된 원리를 밝힌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위의 신화들이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먼저 출생의 원리를 밝히기로 한다. 주인공의 출생과 관련하여 위의 자료들이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주인공을 낳은 부모의 정체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주몽의 경우 그의 아버지는 현실의 아버지가 아니라 천상의 아버지 해모수로 설정되어 있다. 그의 어머니는 현실의 어머니로 명시되어 있다. 즉 그의 어머니는 현실의 어머니 유화이다. 한편 탈해의 경우도 그의 아버지가 현실의 아버지가 아님은 분명하다. 반면 그의 어머니는 적녀국의 왕녀로서 현실의 어머니이다. 주몽과 탈해의 부모가 동일한 형태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의 아버지가 부정되고 다만 현실의 어머니만이 인정되는 것을 출생의 1원리로 삼는다.

한편 이들 주인공들의 출생 또한 모두 두 번에 걸쳐 완결된다. 이 경우도

출생을 제1의 출생 과정과 제2의 출생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제1의 출생 과정이 두 자료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주몽 신화의 경우 유화가 주몽을 알로 놓는 과정이 설명된다. 탈해의 경우도 적녀국의 왕녀가 탈해를 알로 낳는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이야기 모두 제1출생이 알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제2출생에 관해서도 또한 두 이야기는 생생히 들려준다. 주몽 신화의 경우 한 아이가 겹질을 깨고 나왔다고 했고, 탈해 신화의 경우는 그 알이 화해서 사람이 되어 이름을 탈해라고 했다고 한다.

이러한 제1탄생과 제2탄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의 공통된 원리가 발견된다. 그것은 이동 경로와 관련된다. 주몽은 먼저 지상에서 어머니의 태를 통해 태어난다. 그러나 알로 태어남으로 해서 출생이 완결되지 않자 제2의 탄생과정을 거쳐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곳 또한 지상이다. 탈해 또한 지상에서 어머니 태를 통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제2의 탄생 또한 지상에서 완결된다. 이처럼 제1탄생에서 제2탄생으로의 이동 경로는 지상에서 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수평적이다. 이러한 수평적 이동은 함달과 왕국에서 탈해를 상자 속에 넣고 바다에 띄워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는 사실에서 보다 명시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평적 이동을 출생의 2원리로 삼는다.

그리고 탄생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에서 공통된 3원리가 발견된다. 주몽은 제1탄생 과정에서 유기 되며 탈해는 제2탄생 과정에서 유기 된다. 주몽은 어머니 유화로부터 태어날 때 알의 형태였다. 여기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축복이 아니라 상서롭지 못한 일처럼 반응한다. 이러한 태도의 결과는 유기(遺棄)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제2탄생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그가 제1탄생에서 유기되었다는 사실이 제2탄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암시할 뿐이다.

탈해의 탄생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 또한 주몽과 동일하다. 그러나 반응의 양상은 서로 차이가 있다. 탈해가 제1탄생에서 알로 태어났을 때 주변 사람 특히 그의 현실의 아버지 함달과 왕의 반응에는 기뻐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는 “모든 신하들을 모아 묻기를, ‘사람으로서 알을 낳았으니 고금에 없는 일이다. 이것은 아마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라고 한다.

알로 태어난 그에 대해 함달과 왕은 대단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몽과 같이 알이 유기되는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에 알이 아이로 화한 이후에 유기된다. 탈해의 아버지 함달과 왕은 궤를 만들어 그를 그 속에 넣고 “칠보와 노비들을 함께 배 안에 실은 뒤 바다에 띄우면서 빌기를, ‘아무쪼록 인연 있는 곳에 닿아 나라를 세우고 한 집을 이루도록 해 주시오’”라고 한다. 그는 주몽과는 달리 제2탄생 이후에 유기된다.

주몽과 탈해의 제1, 2의 탄생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반응의 양상은 서로 달랐다. 그 다른 점은 제1탄생 과정에서 주몽을 향해 보여준 사람들의 반응이 탈해에게서는 제2탄생 이후에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탄생의 과정에서 주몽이 알의 상태로 유기되고 탈해가 알에서 아이로 화한 후 유기된다는 점에서 그 순서는 다르지만 그 반응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몽과 탈해가 출생에 있어 주변사람들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유기되는 것을 출생의 3원리로 삼는다.

다음으로 그들 생애와 관련한 이야기는 현실에서 제기될 수 있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들의 생애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주인공들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부단히 부딪치며 이를 회피하지 않고 이겨내기 위해 이것과 정면으로 맞선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성공하고 그들의 목표를 성취한다.

주몽의 경우 여러 차례 시련을 겪는다. 첫째는 주몽과 금와의 아들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이다. 주몽의 탁월한 무예 능력은 금와의 아들들을 능가한다. 금와의 아들들은 주몽이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위협을 받는다. 이것이 주몽과 금와 아들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금와의 아들들은 주몽을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한다. 문제는 홀어머니 유희만이 그의 편이므로 거대한 금와 아들 세력과는 힘의 우위를 논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점이다. 아버지 없는 자식이 겪어야만 하는 설움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주몽이 출생에서 맞은 현실적 시련에 이어 또 한번 맞이하는 심각한 고난이자 시련이다.

주몽은 금와의 중재안에 따라 말 키우는 일을 하다. 그는 이제 사회와 격리되고 고립된 공간 속으로 떨어지는 신세가 된다. 여기서 주몽은 지략을 통해 문제를 타결하는 모습을 보인다.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보아 적게 먹여서 여

위게 기르고 둔한 말을 잘 먹여서 살찌게 했다. 그리고 살찐 말은 왕이 타게 하고 자기는 여원 말을 타는 지략을 발휘한다. 이것은 그가 미래의 성공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다. 암울한 처지에서도 그는 그의 능력을 믿고 제기되는 문제와 맞서서 극복하고 있다.

그는 또 한번 심대한 문제에 직면한다. 그것은 왕의 여러 아들과 신하들이 그를 장차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주몽은 현실의 어머니를 통해 이것을 극복한다. 그의 어머니 유화는 “지금 나라 안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 네 재주와 지략을 가지고 어디를 가면 못 살겠느냐,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현실의 어머니와의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보여준다.

그가 현실의 친구 세 사람과 함께 길을 떠나는 장면 또한 긴박하다. 그가 엄수에 도착해서 하는 말속에 나타난다. “오늘 도망해 가는데 뒤쫓는 자들이 거의 따라오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한다. 그가 강을 건너자 뒤쫓아오던 기병은 건너지 못했다고 한다. 쫓고 쫓기는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물론 자라들을 향해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에서 그는 초월자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의 갈등과 문제 해결이 이 장면에서 다소 느슨해지는 면이 있다. 그러나 긴박감은 여전히 전체맥락을 지배하고 있다. 마침내 그가 졸본 주에 이르러 도움을 정하고 나이 12세에 왕이 된다. 이것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쟁취한 승리이다.

탈해의 경우 또한 제1과 제2의 탄생에서 겪은 시련에 이어 성장 과정에서도 시련을 겪는다. 탈해는 우선 수로의 나라인 가야에 들어가려다 거부당한다. 그리고 그는 힘의 약세를 인정하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패배의 지경에 빠진다. 그리고 호공과 짐을 두고 다툼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출발한다. 외래자로서 정착할 곳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를 속이려드는 종 백의의 문제 또한 해결해야만 했다. 그는 일련의 제기된 문제와 맞서서 이를 극복하고 마침내 왕이 된다. 탈해의 생애는 수련과 고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의 성공 또한 이들과 맞서서 이겨낸 결과이다. 이렇게 주몽과 탈해의 생애는 이야기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험난한 시련과 고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함께 그들의 성취는 노력의 결과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주몽과 탈해의 탄생 원리는 첫째 현실의 아버지를 부정하고 현실의 어머니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그들은 출생의 과정에서 수평적 이동을 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셋째 그들은 출생에 있어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수용되지 못한다. 그 결과로 그들은 부모 혹은 주변 사람에 의해서 유기(遺棄)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생애가 갈등과 시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생애의 원리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유기된 탄생이 시련과 고난의 생애와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결합의 신화를 이상탄생 신화의 또 한 유형으로 분류한다.

III. 탄생화소의 생애 제약성

앞장에서는 주인공의 탄생과 생애의 결합 양상이 일관성을 띠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을 서로 다른 계열로 분류하였다. 앞장의 논의 결과를 [표]를 통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탄생과 생애의 결합

	혁거세 · 금와 · 알지 · 수로	주몽 · 탈해
I. 誕生	1. 현실의 아버지 어머니 없음 2. 수직적 이동 3. 수용됨	1. 현실의 아버지 없음. 어머니 존재 2. 수평적 이동 3. 유기됨
II. 生涯		고난과 시련, 그리고 투쟁
	왕으로 추대됨	왕의 자리를 쟁취함

[표]는 주인공의 탄생과 생애의 결합 양상을 보여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결합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탄생화소의 제약성에 의해서 나타난 것임을 밝

히고자 한다. 순서는 혁거세, 금와, 알지, 그리고 수로 신화에 대해 먼저 논의하고 뒤 이어 주몽과 탈해 신화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1. 수용된 탄생과 제약성

혁거세, 금와, 알지, 그리고 수로 신화에서 그들의 생애는 극히 짧고 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이들의 생애에 고난과 시련, 그리고 이것의 극복을 위한 투쟁의 과정이 없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들이 모두 한 사회가 마련해 놓은 제도의 최고자리에 추대된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특징은 주몽과 탈해의 생애와 대조를 이룬다. 즉 주몽과 탈해의 생애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이것의 극복이 자세히 이야기되고 있고 그들의 성취 또한 추대가 아니라 쟁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애의 제시는 구연자의 선택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송 일연이 이야기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선택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택이 탄생 화소의 원리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탄생 화소의 원리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양친의 부정, 수직적 이동, 탄생의 수용이다. 다음은 이들 세 가지 원리가 생애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3원리인 탄생의 수용이 생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탄생의 수용은 외부에서 들어온 존재를 기존의 집단 구성원들이 받아들임을 뜻한다. 받아들이는 동기에는 먼저 외부의 존재와 기존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빚어질 수 있는 갈등의 요소가 없기 때문일 수 있다. 또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존 집단 구성원들이 어떠한 이유로 외부의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위의 네 신화는 동일하게 수용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수용의 동기는 보다 적극적인 데 있다.

우리들은 위로 임금의 없어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두 방자하여 저 하고자 하는 대로하고 있다. 그러니 어찌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임금을 삼아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하지 않는단 말인가.⁹⁾

혁거세 신화에서 보이는 수용의 동기이다. 이미 외부의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동기는 수로신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¹⁰⁾ 이와는 다소 다르지만 금과 신화에서도 수용의 적극적인 동기가 제시되어 있다.¹¹⁾ 이러한 동기는 탄생한 주인공을 수용하게 한다.

이러한 동기를 바탕으로 한 수용은 주인공의 생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기존 집단 구성원들이 그들의 결핍을 충족시키는 인물로 탄생 인물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탄생 이후 그와 구성원들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는 없다. 아무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주인공의 생애에 외부세력이 개입해서 시련이나 장애를 줄 이유가 없다. 따라서 기존 집단 구성원들로부터 환대 받은 주인공의 삶에는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네 신화에서 동일하게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역정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동기가 있다고 해서 새롭게 탄생한 아이가 모두 조건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인공의 탄생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조건이 탄생의 2원리이다. 탄생의 2원리는 탄생의 수직적 이동이다. 수직적 이동은 태어난 아이가 천상에서 지상으로,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동한 이동 경로이다.

얼마 안 되어 우러러 쳐다보니 다만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져서 땅에 닿아 있다. 그 노끈의 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에 금으로 만든 상자가 싸여 있으므로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 알 여섯 개가 있었다.¹²⁾

이 내용은 수로가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온 존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처럼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 존재는 혁거세와 알지 또한 동일하다. 혁거세의 경우 흰말이 알을 두고 하늘로 올라갔으며, 알지의 경우 나무 상자가 나무 위에 걸려 있었다고 한다. 이 두 신화에서 주인공의 이동 경로는 모

9) 我輩上無君主臨理蒸民 民皆放逸 自從所欲 盍覓有德人 爲之君主 立邦設都乎(『삼국유사』, 기이 제1, <신라시조 혁거세왕>)

10) 開闢之後 此地未有邦國之號 亦無君臣之稱(『삼국유사』, 기이 제2, <가락국기>)

11) 夫妻老無子 一日祭山川求嗣(『삼국유사』, 기이 제1, <동부여>)

12) 未幾仰而觀之 唯紫繩自天垂而着地 尋繩之下 乃見紅幅裏金合子 開而視之 有黃金卵六 圓如日者(『삼국유사』, 기이 제2, <가락국기>)

두 하늘과 관련되어 있다. 금와의 경우는 좀 사정이 다르지만 탄생에서의 이동 경로는 동일하다. 즉 그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동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직적 이동이 결핍을 충족시키는 요소로 인식되는 데는 문화적인 의미해석이 적용된 결과이다. 일연은 『삼국유사』 서에서 제왕들의 사적에는 부명과 도록이 있었고 이것이 있는 후에 대업을 성취했다고 했다. 여기서 부명과 도록은 성(聖)의 상징이다. 하늘 또한 그 자체에 부여된 신격으로 인해 우주를 창조한 초월적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에¹³⁾ 성(聖)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지상으로의 이동은 그 자체 부명과 도록의 은유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직적 이동은 문화적으로 성(聖)으로 인식된다.

이에 당시 사람들은 다투어 치하하기를 “이제 천자가 이미 내려왔으니 마땅히 덕 있는 왕후를 찾아 배필을 삼아야 합니다” 했다.¹⁴⁾

사람들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인물을 천자로 인식하고 있다. 천자는 곧 성스러운 존재이다. 곧 수직적 이동을 부명과 도록의 또 다른 은유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부명과 도록이 있고 대업을 잡아 제왕이 되었듯이 수직적 이동을 한 인물도 대업을 잡아 반드시 제왕이 될 존재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직적 이동은 탄생한 주인공에게 신성성(神聖性)을 부여하는 것으로 주인공이 왕으로 추대되도록 결정한다.

그런데 네 신화는 동일하게 아이들의 양친을 부정하는 것을 출생의 1원리로 삼고 있다. 물론 양친을 초월적 존재로 대체함으로써 탄생한 인물에 대해 신성성을 부여하고 그의 생애를 합리화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부친부정, 모친부정, 그리고 양친 부정 이 세 가지 어느 경우에도 다 적용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네 신화가 동일하게 양친을 부정하는 현상을 해명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것에 대한 해명은 심리학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13) 『한국문화상징사전』, (서울:동아출판사, 1992), p.623.

14) 時人爭賀曰 今天子已降 宜寬有德女君配之(『삼국유사』, 기이 제1, <신라시조 혁거세왕>)

있으리라 본다.

네 신화의 주인공은 모두 업둥이이다. 혁거세, 금와, 알지, 그리고 수로가 어 디선가로부터 보내진 시점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리고 새로운 양육자들은 그들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사실상 낳아준 부모는 모르는 채 새로운 양육자들에 의해서 길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업둥이들이다. 업둥이란 업처럼 들어온 아이라는 뜻으로 자기 집 문 앞에 버려져 있거나 우연히 얻거나 하여 기르는 아이이다.

업둥이로 태어난 주인공들은 모두 동일하게 현실의 역경을 거치지 않고 최상의 자리를 누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업둥이로 태어난 아이가 현실의 역경을 거치지 않고 인생에서 최상의 꿈을 성취하는 내용은 아동의 성장에서 그들이 펼치는 상상의 세계와 상당히 일치한다.¹⁵⁾ 성장기 아동들은 현실의 위기를 상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¹⁶⁾ 그 중에 하나가 양친을 부정하는 업둥이적 사고이다. 그는 현실의 양친을 모두 부정하고 대신에 이상화된 양친으로 대체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에 상실을 가했던 현실로부터 탈출하거나 회피하게 된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그는 현실 저 너머 있을 범한 피안의 세계를 창조하고 그 속에서 그의 욕망과 꿈을 성취한다고 한다.

이러한 성장기 아동이 보여주는 업둥이적 사고는 네 신화의 탄생과 생애의 결합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특히 네 신화의 주인공들이 모두 업둥이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이를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업둥이적 사고는 네 신화의 업둥이적 탄생과 고난 없는 성공의 결합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적절히 해명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 보편의 심리를 민족 고유의 신화에 적용하는 데는 환원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세계 신화에 반영된 업둥이적 사고¹⁷⁾를 우리 신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신화의 보

15) Otto Rank, op.cit., pp.68~69.

16) Michael White & David Epston, *Narrative Means to Therapeutic Ends*, (New York, w.w.Norton & Company, 1990), pp. 38~75.

Jennifer Freeman, David Epston, Dean Lobovits, *Playful approaches to serious problems*, (New York: W.W.Norton & Company, 1997), pp.223~296.

편성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상을 통하여 탄생의 세 가지 원리가 생애를 제약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탄생의 수용은 주인공이 인생의 역경을 거치지 않도록 하였으며, 수직적 이동은 신성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주인공이 왕으로 추대되도록 제약을 가했다. 그리고 양친부정은 업둥이적 사고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인생의 역경을 거치지 않고 왕으로 추대되는 주인공의 생애를 결정하였다고 보았다.

2. 유기된 탄생과 제약성

주몽과 탈해 신화에서 생애는 대단히 역동적이고 극적이다. 그런 만큼 그들의 삶에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그것의 극복을 위한 영웅적 투쟁이 있다. 이와 같은 생애는 혁거세, 금와, 알지, 그리고 수로 신화에서의 생애와는 대조적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생애의 양상이 탄생 화소의 원리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다음은 탄생의 세 가지 원리가 생애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먼저 탄생의 3원리인 유기된 탄생이 생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탄생에서의 유기는 외부에서 들어온 존재를 기존의 집단 구성원들이 거부하였음을 뜻한다. 거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장자 대소가 왕에게 말했다.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만일 일찍 없애지 않는다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¹⁸⁾

이에 대왕은 모든 신하를 모아 물기를 “사람으로서 알을 낳았으니 고금에 없는 일이다. 아마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¹⁹⁾

17) Otto Rank, op.cit., pp.65~96.

18) 長子帶素言於王曰 朱蒙非人所生 若不早圖 恐有後患(『삼국유사』, 기이 제1, <고구려>)

19) 於是大王會問群臣 人而生卵 古今未有 殆非吉祥(『삼국유사』, 기이 제1, <제사 탈해왕>)

주몽 신화와 탈해 신화에서 탄생한 인물이 유기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집단의 구성원들은 탄생에서부터 주인공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 이것은 탄생에서부터 주인공의 인생이 외부의 세력에 대해 개방되어 있음을 뜻한다. 실제 이야기에서 외부 세력이 끊임없이 개입하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심각한 고난과 투쟁으로 엮여져 있다. 이처럼 그들의 생애에 외부의 세력이 끊임없이 개입하는 것은 탄생에서부터 그들의 삶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생의 3원리인 유기된 탄생 곧 탄생에서의 개방성은 생의 고난과 시련, 그리고 이것의 극복을 위한 투쟁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기된 탄생에서 그들을 유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출생의 2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수직적 이동을 통해 지상에 도착한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은 수평적 이동을 통해 출생한 존재들이다. 물론 이러한 수평적 이동은 천상이나 지하로부터의 이동이 아니라 지상에서 지상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주몽은 지상의 어머니로부터 출생하며 지상의 알에서 출생한다. 탈해 또한 지상의 어머니로부터 출생하며 지상의 알에서 출생한다. 이러한 지상에서 지상으로의 이동은 탈해의 이동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계를 만들어 나를 그 속에 넣고 칠보와 노비들을 함께 배 안에 실은 뒤 바다에 띄우면서 빌기를, “아무췌록 인연 있는 곳에 닿아 나라를 세우고 한 집을 이루도록 해 주시오” 했소. 빌기를 마치자 갑자기 붉은 용이 나타나더니 배를 호위해서 지금 여기에 도착한 것이요.²⁰⁾

이러한 수평적 이동이 거부의 원인이 되는 데는 문화적인 의미해석이 적용된 결과이다. 일연은 『삼국유사』 서에서 하늘이 상서(祥瑞)를 가지고 인군(人君)에게 내리는 명령 곧 천자가 되게 하는 하늘의 명령인 부명(符命)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하늘을 신성(神聖)하게 여기는 수직적 사고에서 나온 결과이다. 반면 주몽과 탈해의 경우는 일연이 말한 부명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20) 乃造櫃置我 并七賢奴婢載於缸中 浮海而祝曰 任到有緣之地 入國成家 便有赤龍護缸而至此矣(『삼국유사』, 기이 제1, <제4 탈해왕>)

다.

역사적 세력의 수평적 이동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수평적 이동은 두 세력과
의 대결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두 세력의 만남은 주몽신화에서 주몽과 금
와의 만남 탈해신화에서 탈해와 함달과왕과의 만남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이
러한 수평적 이동은 다시 확장되어 주몽과 송양과의 만남 탈해와 호공과의 만
남으로 이어진다. 이들 만남에서 두 세력은 힘의 우위를 확인하기 위한 승패
를 가르는 일에 착수한다. 탄생에서의 수평적 이동은 이러한 세속적 대결의
확장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

기존의 세력들이 처음부터 그를 거부하고 나선 것은 탄생한 주인공을 하나
의 새로운 세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힘의 우위에 대한 염
려 때문이다.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는 점, 고금에 없던 일이라는 점 등은 이러
한 새로운 세력의 힘의 우위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평적 이동은 탄생한 주인에 대해 세력의 우위가 인정되는 영웅성(英雄性)을
부여한다. 탄생에서의 영웅성의 부여는 주인공이 영웅적 행위를 펼치도록 제
약을 가한다. 따라서 출생의 2원리인 수평적 이동은 영웅성(英雄性)을 부여하
는 것으로서 영웅적 행동을 하도록 주인공의 생애를 결정한다.

두 신화의 주인공은 둘 다 사생아이다. 사생아란 민속 사회가 인정하는 부
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이다. 주몽의 어머니 유화도 탈해의 어
머니 적녀국의 왕녀도 민속 사회가 인정할 만한 남편을 두고 있지 않다. 유화
는 은밀하게 해모수와 회통했다. 적녀국의 왕녀 경우는 그녀가 낳은 자식을
법률상의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또 다른 은밀한 회통을
의심받는다. 이처럼 민속 사회가 인정하는 남편이 아닌 어떤 남자와의 사이에
서 주몽과 탈해는 태어났다.

이렇게 사생아로 태어난 아이들은 현실 속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을 맞
이하여 이를 극복하고 마침내 왕권을 쟁취한다. 이처럼 현실 속의 시련과 왕
권의 쟁취 또한 성장기 아동의 사생아적 상상과 일치한다. 성장기 아동들은
자신들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실의 아버지를 이상화된 아버지로 대체
하며 현실의 어머니는 인정한다고 한다. 사생아로 태어난 아이는 자갈밭에 던
져진 한 알의 씨앗이 그러한 것처럼 자신의 성공을 위해 현실과 맞붙어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아이는 이상화된 아버지의 창조성을 모방하고 뛰어넘으려 한다고 한다. 이것이 속세의 출세주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생아적 사고가 현실의 어머니를 인정하고 창조적 출세주의로 나서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늘 현실과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²¹⁾

어머니의 과오를 통해 태어난 사생아는 결국 현실의 문제와 갈등을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저 피안의 세계에서 자기의 꿈을 장난치듯이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원리 속에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이다. 그런 만큼 그는 위반과 범죄 신성모독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²²⁾ 어머니의 죄로 인해 태어난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술수들인 것이다. 그는 그렇게 현실과 마주해서 출세를 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성장기 아동이 보여주는 사생아적 사고는 두 신화의 탄생과 생애의 결합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두 신화의 주인공들이 모두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이를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생아적 사고는 두 신화의 사생아적 탄생과 시련을 극복한 성공의 결합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적절히 해명해 준다. 이러한 사실 또한 심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신화의 보편성을 확인시켜준다.

이상을 통하여 탄생의 세 가지 원리가 주인공의 생애를 제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키편 탄생은 외부의 세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개방시킴으로써 그들의 삶이 시련과 고난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수평적 이동은 영웅성을 부여함으로써 주인공이 투쟁을 통하여 왕권을 쟁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친부정은 사생아적 사고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시련과 투쟁을 통하여 왕권을 쟁취하도록 결정하였다.

IV. 제약성과 서사의 두 경향

21) 마르틴 로베르, 김치수·이윤옥 역, op. cit., pp.38~74.

22) Ibid., p.58.

서사 문학에 있어서 진실의 추구는 사실주의적 경향²³⁾과 낭만주의적 경향²⁴⁾으로 나뉘어진다.²⁵⁾ 그런데 탄생과 생애의 결합 양상에 따라 이상탄생 신화 또한 두 가지 경향으로 어느 정도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장의 논의에서 수용된 탄생과 수직적 사고, 그리고 업동이적 사고를 보여주었던 탄생화소의 신화는 다소 낭만주의적 경향을 지닌다. 한편 유기된 탄생과 수평적 사고, 그리고 사생아적 사고를 보여주었던 탄생화소의 신화는 초보적이거나 사실주의적 경향을 보여준다.

혁거세, 금와, 알지, 그리고 수로 신화는 수직적 사고와 업동이적 사고의 제약을 받아 창조된 세계이다. 이들 사고를 통해 창조된 신화의 세계를 보면 현실적 문제와 갈등보다는 비약적으로 성취된 꿈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신화의 인물들은 아무런 현재적 갈등도 안지 않은 채 절대 권력자인 왕으로 추대된다. 이것은 인간의 꿈과 이상의 실현을 위해 창조된 이야기들이다. 특히 그들의 탄생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갈등은 전적으로 배제된다. 대신에 그 자리에는 경이로움과 성스러움 그리고 화합과 조화만이 이야기된다.

수로의 경우에서 허왕후와 수로와의 결혼 그리고 그들의 생애는 이들 계열의 낭만성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수로가 군신들의 청에도 불구하고 허황옥이라는 배필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장면은 이상

23) 여기서 사용하는 사실주의라는 용어는 한 시대의 문예사조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사실주의를 지칭한다. 즉 객관적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려내려고 하는 경향, 말하자면 삶의 현실적인 면을 그리는 데 충실한 것을 사실주의적 경향이라 한다.

24) 여기서 낭만주의는 한 시대의 문예사조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낭만주의를 의미한다. 즉 꿈이나 공상의 세계를 동경하고 감상적인 정서를 좋아하는 정신적 경향, 말하자면 삶의 이상적인 면을 그리는 데 충실한 것을 낭만주의적 경향이라고 한다.

25) Robert Scholes와 Robert Kellogg는 모방적 서사는 감각, 환경의 진실을 추구하며 행위와 정신과정에 대한 발전된 사회적 심리적 개념이라 정의한다. 한편 낭만적 서사는 허구를 통해 인간의 이상과 꿈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다. 이 두 사람의 모방적 서사와 낭만적 서사는 본 장에서 사용하는 두 용어의 개념과 일치한다. (Robert Scholes & Robert Kellogg, *The Nature of Narrative*,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p.11~16)

적인 만남을 위한 배려이다. 수로는 “나는 나면서부터 성스러워서 공주가 멀리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 신하들의 왕비를 맞으라는 청을 따르지 않았소”라고 한다. 이것은 두 사람의 만남을 이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두 부부의 삶 또한 한 쌍의 남녀가 결혼한 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조화롭고 행복한 모습이다. 이야기는 “왕이 왕후와 함께 사는 것은 마치 하늘에게 땅이 있고, 해에게 달이 있고, 陽에게 陰이 있는 것과 같았으며 그 공은 도산이 하늘을 돕고 당원이 교씨를 일으킨 것과 같았다”라고 한다. 그리고 그들의 임종에 대해서도 행복한 장면을 보여준다. “왕후가 죽자 왕은 매양 외로운 베개를 의지하여 몹시 슬퍼하다가 10년을 지낸 현재 입안 4년 기묘 3월 23일에 죽으니, 나이는 158세였다”고 한다. 그들은 평생 한결같이 음양의 조화로움 속에 살았으므로 생의 마감 또한 조화로움 속에서 이루어진다.

혁거세, 금와, 알지, 그리고 수로의 이야기는 인간이 소망하는 욕망과 꿈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그려 보이는 세계는 행복이 깃든 정적인 세계이며 갈등과 투쟁이 있기 이전의 세계 곧 조화와 화합의 유토피아의 세계이다. 이렇게 볼 때 이들 내용들이 낭만적 서사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몽과 탈해의 신화는 수평적 사고와 사생아적 사고가 만들어 낸 세계이다. 이러한 사고를 통해 창조된 세계는 현실적 문제와 갈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계임을 볼 수 있다. 신화의 인물들은 현세적 욕망과 갈등 앞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 그들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현실 세계의 일단을 드러낸다. 특히 그들의 탄생에 있어서 제기된 시련과 고난은 이러한 현실 세계 원리의 냉혹함을 보여준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은 냉혹한 현실과의 영웅적 투쟁과 성공의 쟁취만이 있을 뿐이다.

주몽은 원죄를 지은 홀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시련은 태어남과 동시에 시작된다. 그는 성장 과정에서 금와의 아들들로부터 끊임없는 현실적 위협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해 나간다. 말을 키우는 일을 하면서 그가 보여주는 거짓의 숨씨는 죄지는 홀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아이가 현세의 출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그가 맞이해야 하는 끊임

없는 생명의 위협은 그가 얼마나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홀어머니가 그의 출세를 위해 떠나보내는 모습은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큰 시련을 나타내는 것이다. 작고 초라한 궁실을 짓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그의 현실적 투쟁이 얼마나 심각하게 벌어져야 하는가를 예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이론 출세는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의 영웅적 재능과 권모술수가 쟁취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탈해는 태어남과 동시에 그의 어머니의 정직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부정되는 아들이 되고 만다. 그리고 아들이기를 부정한 아버지는 그를 바다를 통해 어디론가로 보내버린다. 그가 바다 위를 떠다녀 또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하고 살아야 하는 운명이라는 것은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죽지 않고 바다를 건넜다고는 하지만 그가 정착을 시도한 수로의 나라에서 비참하게 도망을 치고 말아야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수로에게서 패한 그가 신라로 도망가는 그의 뒷모습은 신화적 주인공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기에 그 모습은 낯설게 느껴진다. 하지만 현실이 사생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생각할 때 이것은 결코 우연한 모습이 아니다. 그가 정착할 곳을 못 찾고 토함산으로 올라가는 그의 모습에서는 곤궁함이 느껴진다. 호공의 집을 빼앗기 위해 술수를 쓰는 모습에서 사생아가 출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사회적 금기가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남해 왕으로부터 발탁되는 모습에서 사생아가 출세를 위해 처놓은 광범위한 술수의 그물 망이 얼마나 은밀하고 교묘하게 놓여 있는가를 보여준다.

주몽과 탈해의 이야기는 지극히 현실적인 삶의 원리를 바탕으로 깔고 그 속에 살아가는 신화의 인물을 그려내고 있다. 이들이 그려내고 있는 세계는 역동적인 만큼 갈등과 투쟁, 술수, 도망과 패배, 곤궁과 시련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것은 현실의 원리 현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들 내용들이 상당히 현실적이고 그런 만큼 이들 이야기들이 사실주의에 근접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탄생 화소의 원리를 통해 나뉘어진 신화의 두 계열을 서사의 경향성과 관련

지어 논의하였다. 그 결과 기원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신화의 경향이 낭만주의 경향과 사실주의 경향으로 나뉘어짐을 밝혔다. 혁거세, 금와, 알지, 그리고 수로신화는 낭만주의 경향을 주몽과 탈해 신화는 사실주의 경향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의 확인은 한국 서사 문학을 경향에 따라 체계를 세울 때 신화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나아가 두 경향에 따른 신화의 진실성을 밝히는 작업이 가능하리라 본다.

V. 맺음말

논의를 시작하면서 신화를 대상으로 하여 탄생화소의 생애 제약성을 밝히고 나아가 제약성과 서사의 경향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었다. 논의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화가 인물의 탄생과 생애를 기준으로 하여 크게 두 갈래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는 혁거세, 금와, 알지, 그리고 수로 신화 계열이고 다른 하나는 주몽과 탈해의 계열이다. 전자의 계열에 속하는 신화들에서 공통된 출생의 원리는 주인공의 실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정되고, 그들의 탄생에서는 수직적 이동을 하며, 그들의 탄생은 거부되지 않고 수용되는 것 등이다. 그들의 생애의 원리는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고난과 시련의 내용이 없고 인생의 성취만이 있다는 것이다. 후자의 계열에 속하는 신화들에서 출생의 원리는 인물의 실제 아버지는 부정되는 반면 어머니는 현실의 어머니로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의 탄생에서는 수평적 이동을 하며, 그들의 탄생은 수용되지 못하고 거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생애의 공통된 원리는 현실적인 갈등과 고난, 그리고 투쟁으로 생애가 이루어져 있으며 마침내 승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공통된 원리를 통해 신화를 두 가지 계열로 분류하였다.

둘째 탄생이 생애의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탄생의 원리를 통해 접근하였다. 그 결과 혁거세, 금와, 알지, 그리고 수로 신화에서 이들의 생애는 탄생의 세 가지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에서도 신성성을 부여하는 수직적 사고와 성장기 아동의 상상인 업둥이적 사고가 생애의 제약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몽과 탈해 신화에서 이들의 생애 또한 세 가지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 중에서도 영웅성을 부여하는 수평적 사고와 성장기 아동의 상상인 사생아적 사고가 생애의 양상을 결정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통하여 탄생이 생애를 결정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셋째 탄생 화소의 원리를 통해 나뉘어진 신화의 두 계열을 서사의 경향성과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그 결과 기원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신화의 경향이 낭만주의 경향과 사실주의 경향으로 나뉘어짐을 밝혔다. 혁거세, 금와, 알지, 그리고 수로신화는 낭만주의 경향을 주몽과 탈해 신화는 사실주의 경향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의 결정에 있어서 신성성을 부여하는 수직적 사고와 업둥이적 사고는 낭만주의적 경향을 영웅성을 부여하는 수평적 사고와 사생아적 사고는 사실주의적 경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주제어 : 이상탄생 신화, 탄생화소, 주인공의 생애, 제약성, 신성성, 수직적 사고, 업둥이적 사고, 영웅성, 수평적 사고, 사생아적 사고, 낭만주의 경향, 사실주의 경향

참고 문헌

- 강진옥, 「한국설화의 이류교혼 모티브 연구」, 『이화음운집』, 제11집.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91.
 서대석, 「구렁덩딩 신선비의 신화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제3집, 고전문학연구회, 1986.
 소재영, 「이류교구고」, 『국어국문학』, 42·43합, 국어국문학, 1969.
 이상우, 「주몽신화의 기본구상-탄생담을 중심으로」, 『명지어문학』, 19집, 명지대, 1990.

조동일, 『민중영웅 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조희웅, 『설화학강요』, 새문사, 1989.

허경희, 「한국의 왕조설화 연구」,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1987.

마르트 로베르 김치수·김윤옥 역,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원』, 문학과 지성사, 1999.

캐서린 흠, 한창엽 역,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Freeman, Jennifer, Epston, David, Lobovits, Dean, *Playful approaches to serious problems*, W.W.Norton & Company, 1997.

White, Michael & Epston, David, *Narrative Means to Therapeutic Ends*, W.W.Norton & Company, 1990.

Rank, Otto, *The Myth of the Birth of the Hero*, Tr. by Robbins and Smith Ely Jelliffe, Random House, 1964,

Scholes, Robert & Kellogg, Robert, *The Nature of Narrative*, Oxford Uni. press, 1966.

※ 이 논문은 2002년 4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2년 5월 2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2년 6월 1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